

속 기록

1. 회 의 명 : 제363차 위원회 전체회의

2. 일 시 : 2023. 9. 22(금) 14:02~15:23

3. 장 소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4. 출석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김미라 위 원

김진각 위 원

배은주 한폭문화예술위원회

서승미 위 원

이훈경 위 원

장미진 위 원

장인주 위 원

정갑영 위 원

정정숙 위 원

정종열 위 원

5. 불참위원 : 홍성태 위 원

1. 성 원 보 고

정병국 위원장 :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63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 등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김효은 노동조합위원장이 근로자대표로 참석하셨고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지원총괄부 서유미 차장을 포함한 사무처직원 1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위원 12인 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장인주 위원님을 포함해서 11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홍성태 위원님은 현재 해외 출장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2. 개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 결과

정병국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전차 위원회 전체회의 관련 결과는 회의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8월 25일 개최한 제361차 전체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어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 의 결 사 항

정병국 위원장 : 예.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1018호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주연 기획조정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안건번호 1018호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7월 말에 문체부로부터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운영·관리 위탁을 중지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인수인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9월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문화공간조성기획팀을 사무처 운영규정의 조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의 신·구 조문 대비표처럼 예술기반본부의 부서 중 문화공간조성기획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처 운영규정은 저희 제규정 관리규정 제8조에 따라 기본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질문해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체가 돼서 조직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인 위탁 중지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왜 굳이 이 조직이 해체될 수밖에 없는지? 간단하게라도 그렇게 된 취지나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납득하고 외부에서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1~2명이 물어보더라고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는 어떻게 되었느냐?” 사업 주체가 변경되었다고 얘기는 했지만 왜 변경되었는지 모르면서 이것을 의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것에 대해 담당자께 여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예술위원회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지난 7기 위원회 때 당인리발전소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고, 스터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문체부의 입장이 이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게 해야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스터디하는 과정 중에 예술위원회가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정기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술위원회에서는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여기저기에서 모아서 이 사업을 떠맡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문화공간조성기획팀을 만들어 잘 운영을 해왔어요. 지난 5월 IFACCA 총회에 갔던 김에 이것과 관련해서 향후 이것을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독일이 산업유산을 문화유산으로 바꾼 성공사례가 많아 현지 조성팀과 같이 현장에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했고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배워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이 공간 운영에 대한 문체부 입장변화가 생겼습니다. 현재는 사임을 하신 문체부 장관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것은 문체부가 직접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지침을 주지 않더라고요. 가부간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 문체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체부가 직접 하겠다.” 라고 공문이 왔고요. 그렇다고 하면 문화공간조성기획팀에서 같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테마형 임대주택 사업도 우리는 못하겠다.”, “이 사업만 별도로 할 수가 없다.” 라고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그 사업까지 문체부로 넘겨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정숙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직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것을 다시 넘기는 과정에서 사전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해왔던 사업이니까 애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부분이 어쨌든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한 것이니까 누가 하든 간에 이 사업이 차질 없고 연속선상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을 아카이빙하여 전체적으로 인계했구요.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었더니 장관께서는 서계동 열린문화공간에 시설을 새로 짓는데 그 시설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와 몇 개 시설을 묶어서 또 다른 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체부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쉽지 않다고 하는거죠. 그것은 문체부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의 방침은 계속 기구를 축소하고 통폐합하려는 취지와는 안 맞는 상황이라서 우려를 갖고 있더라고요. 새로 장관님이 오시면 어떤 방침이 있겠죠. 더 궁금하신 게 있습니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1019호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준화 지원총괄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안건번호 제1019호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3페이지부터 보시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공모사업의 사업비 총괄 현황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현재 정부안 기준으로 공모할 수 있는 총예산은 710억 원이고요. 이 중 101억 원은 기존에 다년간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 2024년에 공모를 하지 않는 사업을 제외하면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의 사업비는 609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예산 체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은 통합이 되지만 일단 예산 구조는 현행 구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별로 기존 사업의 몇 가지 예산들이 통합되는 구조로 공모가 진행됩니다. 그 세부 내역은 표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중 특이사항이 맨 하단에 기술되어 있는데요. 2023년도 기준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 중 3개 사업인 대한민국연극제, 전국무용제,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향후 3년간 공모 방식이 아닌 지정교부 방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첨2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공모사업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핵심 위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 개선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사업구조는 단순화하면서 수용의 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기준 총 44개 사업이 17개 사업으로 통합되어 공모가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새로 재편되는 17개 사업은 창작영역과 정책영역, 2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창작영역의 경우 모두 공통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단년도를 지원하는 “창작의과정”, “창작산실” 그리고 다년도로 지원하는 “창작주체” 3단계 지원으로 창작영역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책영역은 창작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국제교류, 일자리, 청년예술가, 향유사업 4가지 분야에 대해 정책

영역의 구조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창작의과정”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창작자가 본인의 창작을 준비하는 과정만 지원했는데 이번 공모부터는 창작자 외에도 기획자나 스태프같이 다양한 주체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고요. “창작주체”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단체 지원, 공간지원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창작주체” 사업으로 통합되면서 다양한 예술현장의 창작주체들이 지원신청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2023년도 공모사업과 현재 개편되는 2024년도 공모사업을 비교하는 표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개편방향입니다.

예술현장의 자율성·지속성 제고를 위한 사업 운영 방식의 개선입니다.

말씀드렸던 “창작주체”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지원하던 것을 이미 예술현장에서 역량이 입증된 창작 주체가 3년간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선했고요. 이 사업은 3년 단위의 장기지원 사업이기는 하지만 매년 공모를 해서 계속해서 신규 주체들이 편입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단 지원사업의 성과확산입니다.

기존에 문예진흥기금 사업이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것처럼 지원금을 교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원사업 와중에 예술가들이 필요로 하는 네트워킹,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개편 방향으로 보조사업 운영 방침 강화로 지원사업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일단 지원심의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사업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심의위원 후보단을 전면 재정비하여 3년 임기제를 도입하고 임기 중반이라도 불공정하거나 불성실한 심의위원은 아웃시키는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참여자의 책임성 강화입니다.

미정산, 미반납같이 보조사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성실 이행한 경우에는 지원신청 및 선정을 차단하거나 향후 심의에서 감점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중선정 제한은 기존에는 지원금 총액으로 선정을 제한했는데 지금은 지원금 총액이 아닌 총 3건까지 선정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 이상의 사업이 선정되는 경우에는 3건까지만 선정자의 선택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고요. 지원된 사업들의 평가와 모니터링, 환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선정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서면평가를 실시해서 다음 심의에 반영하고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훌륭한 사업들이 다음 해 사업 심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반영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추진 일정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에 설명회를 진행하고 공고가 올라가게 됩니다. 신청 접수를 10월 4일부터 시작해서 창작영역은 10월 26일, 정책영역은 10월 30일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접수가 마감되면 행정 결격사유 파악과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에 11월부터 지원심의를 시작해서 12월 중순까지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12월 29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정 결과를 최종 의결해 주시면 12월 중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공모사업의 공통 방침입니다.

기존에 세부적 기준으로 적용되었던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신청 부적격자를 제외하고는 전년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원심의 운영 부분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방식은 기존에는 3가지 방식. 그러니까 무작위 추첨, 적격자 지정, 전담심의위원구성으로 3가지 방식이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위원님들과 사무처가 동수를 추천해서 그 안에서 무작위 추첨을 하는 기존의 적격자 지정 방식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단, 해당 분야 위원의 부재 등으로 심의위원 후보자를 위원님들이 추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님에게 심의위원 구성 절차를 위임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지원심의를 과락에 대한 적용이 없었는데 이번 지원심의를부터는 평점 75점 이하의 과락으로 처리해서 순위상으로 선정권에 들더라도 지원사업에 선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원심의 기준 및 우선 고려사항을 보면 전 위원회에서 진행해 왔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신청률 대비 선정률을 반영하는 지역균형지원제도는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하 내용은 전년과 동일한 내용이라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1월에 8기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함께 즐기치게 달려왔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부터 현장업무보고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들었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공배수가 큰 분야부터 어떤 방식으로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사업구조를 개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성은 정준화 지원총괄부장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이것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을 만들고 나서도 전문가들과 분야별로 라운드테이블을 통해서 충분히 숙고했고 그 뒤에 그렇게 나온 안을 온라인상에 공지를 했습니다. 공지를 해서 그 뒤에 또 분야별로 공청회를 진행해서 2차 현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차 의견을 수렴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 뒤에 또 다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고 그 최종안이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저는 어떤 안도 이것이 최선이고 옳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현장에서 의견도 있었고 우리가 이런 부분은 보완하고 변화를 해야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만든 안입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변화와 개혁을 외치지만 결국은 그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 나일 때는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안으로 실행했을 경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이고 또 다른 의견과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두렵다고 생각하면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함께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지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이런 것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패념치 마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제가 한 가지 의견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통합하고 분리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혁신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이클이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혁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44개의 사업이 17개로 통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보고 싶은 것은 17쪽을 보면 2023년 사업과 2024년 사업의 비교표가 있어요. 그 중에 2023년도에는 공공예술 사업이 제일 끝의 표에 있는데요. 그게 2024년에는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예술이기 때문에 위탁성 사업이라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통합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기간이 끝나서 없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예. 8월 정부안 예산편성 과정에서 2023년 대비 2024년 제일 큰 변동이 있던 부분이 예술과기술융합 사업과 공공예술 사업입니다. 공공예술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반영된 예산이 다년간 지원으로 기존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 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 사정 때문에 기존에 진행했었던 공공예술 사업의 공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전체는 아니겠지만 시각예술 영역에 포섭될 수 있는 부분은 시각예술 영역으로 지원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번 예산편성의 기준을 보면 중복된 예산을 한쪽으로 모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술과기술융합 사업은 전체적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산 당국을 설득한다고 했는데 끝내 설득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술과 기술이라고 하니 산업으

로 생각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이 분야의 랩도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창업으로 연결시켜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사업은 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술과기술 영역을 접목해서 창작의 지평을 넓힌다는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순수예술로 봐야 하는데 산업으로 판단하고 있어서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깎이는 대신 창작지원 부분으로 예산이 일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꼭 예술과기술융합이라는 사업명은 아니더라도 창작의 지평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은 지속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예술 사업 예산은 전면 다 삭감되었는데요. 이것은 연속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연속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하던 것은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연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추후에 설득이 돼서 일부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침이 공공예술과 같은 분야는 지역에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중앙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지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예술위원회의 향후 사업들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가능하면 기획사업을 운영하는 쪽으로, 그래서 어떤 신규사업을 기획해 보는 식으로 실험을 하고 잘 되었을 때는 지자체 등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예술위원회가 방향을 잡고 나가야 하고 공공예술 같은 경우에는 연속지원 사업은 이번에 지원을 합니다만 앞으로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기관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숙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갑영 위원 : 워딩에 관한 질문인데요. 16쪽을 보시면 표에 창작영역과 정책영역이라고 해서 “예술의 다양성 증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가 잘되지 않는데 엄밀히 말하면 예술의 다양성이 아니죠. 예술 지원대상의 다양성인 것 같은데요. 그것을 예술의 다양성이라고 표현하면 자칫 “이것을 통해서 무슨 예술의 다양성을 얻냐?”라고 되니까요. 워딩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당초 2가지 영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사업들을 구성할 때는 정말 창작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여러 가지 영역들. 예를 들어서 예술과 기술이나 어린이·청소년 사업 등 다양한 영역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양성이라는 컨셉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사업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국제교류나 일자리 사업이 포함되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술의 다양성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미처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1020호 2023년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결과입니다. 이어서 정준화 지원총괄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예. 안건 보고에 앞서서 내년도 공모계획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 고요. 아마도 내년과 내후년 등 2년 정도는 개편의 폭이 크기 때문에 사무처 내에서도 많은 진통을 겪을 것 같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위원님들께 계속 여쭙봐 가면서 사업 개편 내용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1020호 2023년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결과입니다.

회의자료 29페이지부터고요. 세부 내용은 3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선정위원회와 지난주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위원 후보단의 구성을 진행했습니다.

전체 모집된 인원은 1,983명이고 그중에 예비선정위원회에서 중복 인원을 제외한 1,966명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의 비대면 서류검토,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서류검토 과정을 거쳐서 지난 선정위원회에서 총 666명을 심의위원 후보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총 666명의 각 세부 장르별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선정위원회 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전문분야1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분야2까지 포함하면 각 분야별로 인원이 더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666명을 지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주신 대로 그대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기타사항을 보시면 오늘 의결해 주시면 10월 10일경에 결과를 발표하려 합니다. 발표 문안과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심의제도운영개선 TF에 보고를 드려서 확정받은 후 최종 결과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계속 이야기되었던, 선정된 분들에 대한 향후 안내, 이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을 드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TF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붙임1을 보시면 분야별 총 666명에 대한 명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사안이 우리 예술위원회에서 가장 어렵고 지난한 개혁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과 3월 현장업무보고를 통해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도 심의제도, 심의위원들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요. 그 의견들을 그냥 실무진에게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바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TF팀을 이끌었던 위원님들이 결정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분야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생을 해주신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 흡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발표되기 전이지만 현장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확정되고 발표되면 여러 가지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예지했기 때문에 지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손을 대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손을 안 댄다.” 라고 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저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손을 써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해 주셔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담당 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공지하고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을 논의하고 보완할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사업 건수가 44건이 되기 때문에 건수별로 심의위원들이 여러 차례 동용될 수 있었고 그래서 사업 건수가 많아도 소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구체적이었고 사업별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심의했기 때문에 큰 잡음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의 수를 줄였고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들의 재량이 많이 작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 건수를 축소하느냐? 사업이 세분화되어 사업별 기준에 맞추다 보면 관제적인 창작물을 만들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 창작인들의 영역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해 주는 것과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만든 방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향후 운영을 하는데 심의위원들의 역량, 그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심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심의제도를 운영하는데 이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견들이 많으실 텐데요. 충분히 그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공유된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지난 선정위원회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심의위원 후보단 위촉 결과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3년이 위촉기간인데 그것을 위촉장 수여 형식을 통해서 줄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 없이 일괄적으로 그냥 공지를 하는 정도로 같음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후보단에 위촉장을 줬을 경우 리스크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위촉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줬을 경우

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공개하는 게 좋을지? 개별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할지? 그러니까 심의위원 위촉과 관련된 것들을 정교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도 자체를 다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중요한데 심의위원은 3년이라는 위촉기간 자체에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것이 악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발표하기 전까지 문구나 위촉의 방법 등에 대해서 정밀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좀 주세요. 실무진들 사이에서 결정하기보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표하고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저는 조금 전에 정준화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심의제도와 관련된 심의제도운영 개선 TF가 2월부터 계속 논의를 해 왔고 지금 마지막 발표하기 전까지 논의를 해서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심의제도운영개선 TF의 노력을 신뢰하고요. 오늘 의견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뭔가 의견이 있으면 심의제도운영개선 TF 위원들에게 전달을 하고 정 준화 부장님께도 전달을 해서 수렴하여 발표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지는 않겠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도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있어야 할 것 같고 우리가 사심이나 어떤 의도가 분명히 없어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대응할 준비는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심의제도운영개선 TF에서 최종 정리를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반영한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의견들을 주시죠.

정정숙 위원 :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심의위원을 위촉했다거나 불필요한 행정적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의 멘트는 지양하고요. 탈락하신 분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후보단에 포함되었습니다.” 라는 정도로 중립적이고 무난한 위딩을 통해서 심의위원이 되신 분들도 명예가 급상승되는 일이 없고 상대적으로 탈락하신 분들이 입을 상처도 줄이는 형태로 가장 무리가 없는 용어들을 선택했으면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배은주 위원 :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수락하는 절차는 없어도 되는 것인가요?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본인이 자천을 했고 타천을 한 것도 본인들의 의사를 들은 다음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배은주 위원 :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저희도 사업을 할 때 그분들이 그런 절차에 따라서 최종 선정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고요.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한 번 더 본인의 의사를 묻는, 그래서 위촉장 수여는 아니지만 위촉이 되었다고 알리는 절차를 하고요. 또 그분들이 그때는 그랬지만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수락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 물어보는 절차를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일단은 플에 들어오셨다고 하더라도 100% 심의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심의위원으로 3배수 추천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묻습니다. 그 시기에 가능한지 아닌지를요. 그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자천에 의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다 수고 타천에 의해서 한 분들은 모두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 심의할 때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정에 따라서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위원님들이 그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셨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간으로 “임기가 3년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3년 동안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워딩으로 나가면 될 것 같고요. “3년 뒤에는 다시 재편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하면 기간이나 임기로 받아들이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되었고 3년 뒤에는 재편을 한다. 주기적으로 바꾼다는 개념으로 홍보가 되면 좋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정정숙 위원 : 예. 동의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고 사항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입니다. 2023년 심의제도운영개선 TF 9차 회의 결과 등 총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 2023년 심의제도운영개선 TF 9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정종열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 2023년 심의제도운영개선 TF는 9차례의 회의와 토론회, 워크숍을 통해서 심의제도 운영 개선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외부 위원들과 여기에 계신 내부 위원들께서 도와주셔서 예비선정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거쳐 오늘 의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의위원 후보단에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 심의제도 개선에는 많은 토의를 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1~2회 정도의 회의를 거쳐서 실질적인 심의제도 개선 의견을 내고 심의제도운영개선 TF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정준화 부장님 외 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그런데 심의위원 후보단 문제 때문에 심의제도 개선에는 집중을 못 했다고 하셨는데요. 제도 개선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와 소통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제도 개선이라고 할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쓰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심의제도운영개선 TF는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종열 위원 :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준화 부장님이나 심의제도운영개선 TF의 팀장이신 장인주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심의위원 후보단도 굉장히 중

요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사업이 통폐합이 돼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그것을 지원하는 분들도 쉽지가 않고요. 심의를 하시는 분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매끄럽게 만드느냐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최대한 다듬어서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두 차례 더 해서 마무리가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큰 틀과 방향은 정해졌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사안별로 방향과 기준을 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우리가 어렵게 만든 이 안의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F가 한 두 번 하고 끝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가 진짜다.” 아마 지금 사업이 44개에서 17개로 축소가 되었잖아요? 17개 사업별로 그 사업 성격에 따른 기준과 방향을 정해서 나중에 심의위원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또 심의기준을 논의하겠지만 심의의 방향 그리고 이 사업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제시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혼란이 최소화되지 않을까요? 17개의 사업별 심의기준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17번은 하셔야 하지 않을까? 굉장히 어려운 사안일 겁니다.

정종열 위원 :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1~2회로 끝날 게 아니라서요. 많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저나 장인주 위원님의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TF를 꾸려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심의가 11월부터 진행되니까 그 이전에 끝내주셔야 합니다. 이 방향은 심의제도운영개선 TF팀이 더 박차를 가하셔야 되는데요. 11월부터 심의에 들어가잖아요? 그 전에 심의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주 위원 : 위원장님이나 정종열 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추가 의견은 없는데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더 힘이 났고 저희가 이 지원심의제도 전체의 개편을 고민하다가 무엇보다 후보단 재구성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박차를 가해 왔는데요.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이만큼 올 수가 있었고요. 지금 말씀을 해주신 대로 박차를 가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결국 심의위원 후보단을 선정하는 것은 대외적인 것이고요. 여기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 되겠지만 이게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는 향후 TF팀에서 만들 사업별 심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잡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셔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김진각 위원 : 그런데 17개 사업에 대한 개별적인 심의 방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그 짧은 기간에 이 TF에서 다 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별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요. 심의 방향을 잡는다는 게 기존의 심의 기준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 차별화 된 지점을 찾으려면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동안 얼마만큼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꺼번에 바꾼다고 하면 불가능할 것 같고 일단은 예전의 기준을 놓고 보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임시적으로 하고 내년에 전면적으로 바꾸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국 위원장 : 어쨌든 내년 사업은 11월부터 심의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사업구조를 조정하면서 왜 구조조정을 했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무적 차원에서는 방향성이 나와 있고요. 방향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한 번 점검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공통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 사업별로 조금 더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해당 장르별 위원님들께서, 또는 일반행정이나 문화일반을 다루셨던 위원님들이 그 관점에서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보완을 해 주시면 이번 심의 과정부터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올해 해 보면 어떤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을 것인데 어떤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이 후에 논의해서 다음 연도에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무진에서는 해당 위원님들께, 또 문화일반이나 행정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고 정리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심의 전에 구성협의서를 좀 빨리 보내 주시고요. 그전에 관련된 공모내용을 미리 공유해서 보완할 점을 미리 검토할 시간이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기도 하지만 사업별로 위원님들한테 “위원님은 이런 사업들을 구성하실 겁니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따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심의위원 선정위원들이잖아요? 선정하시기 전에 TF 팀과 협의를 하시고 거기에서 공감하면서 “나는 이런 기준으로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TF팀에서는 이 사업이 이런 쪽 방향으로 구성이 됐으니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위원들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기준도 마련이 되어야 하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보고안건은 2023년 예술과기술융합기반구축 TF 7차, 8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김미라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 예술과기술융합기반구축 TF 7차, 8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차 회의는 저희가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콘솔레이션홀에서 있었던 예술기술융합 국제컨퍼런스 참관으로 갈음했습니다. 국제컨퍼런스를 참관했는데요.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았고 국제교류의 가능성의 여러 가지를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던 기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술과기술융합 사업에 대한 여러 청사진을 그려놓고 있던 차에 기재부에서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이 사업을 이 이름으로 이어갈 수 없는 점은 다시 한번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정확히 제시되지 않은 점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술과기술융합 콘텐츠나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들이 정말 의미 있고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양한 형태의 장르와 문화일반 분야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고 내년 사업에서 이 사업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주체” 와 “창작산실” 사업으로 열어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장르별로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풀뿌리적인 요소들을 꾸준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8차 회의를 했고 예술과기술융합기반구축 TF는 종료하는 것으로 하려합니다. 8차 회의는 지난 9

월 14일에 예술가의집 세미나실에서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에 예술과기술융합랩을 조성하는 타당성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진지하고 짜임새 있는 연구를 했고, 짧은 시간에 결과를 만들어 냈는데요. 그 부분들을 다 공유했고 문체부에도 전달을 드려서 이런 연구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중 다원예술 분야에서 융합예술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예술과기술융합기반구축 TF는 8차 회의로 종료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년 예산에서 예술과기술융합 사업이 완전히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연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이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일정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내용이 연결될 것 같아서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 스톡홀름 IFACCA 총회 현장에서 총회 개최 제안을 했고 지난 7월에 다음 IFACCA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IFACCA 사무국에 전달했고 제안서를 마감기일 내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3개국을 후보 나라로 결정했어요. IFACCA 사무국에서 연락이 오기는 우리나라가 “1등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원래는 12월 이사회를 통해서 이것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정이 당겨져서 10월 말에 아부다비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제안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주제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예술창작의 지평을 얼마나 넓힐 것인지? 거기에서 대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우리가 공동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그러면서 “왜 IFACCA 총회는 3년마다 1번씩 하나?”, “내 임기가 3년인데 다음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나는 내 임기 중에 이것을 해야겠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로 지정해 줄 때는 1년 뒤든 2년 뒤든 가능할 때 개최 시기를 정해주면 하고 그게 아니면 신청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시기도요. 그래서 2025년 5월까지로 지정해 줬고요. 저희가 2025년 10월로 얘기를 했더니 10월은 자기들의 일정이 많아서 5월로 해 달라고 해서 5월로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최종적으로 이사회 일정을 앞으로 당기는 것 같고요. 당기면서 어떤 제안이 왔느냐 하면 모든 경비는 자기들이 부담할테니 이사회에 직접 와서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IFACCA 총회를 개최할 것인지에 대해 브리핑을 해 줄 수 있겠느냐는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제가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갑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IFACCA 총회를 개최하게 되면 주제가 예술과 기술의 융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강하지만 예술과 기술의 융합은 새로운 영역이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회를 잡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가 이 분야의 중심국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시를 했던 것인데 아이러니하게 이 예산이 몽땅 잘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총리와 전화하면서 설득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대신 “삭감한 예산은 없애지 않겠다.” 그래서 원래는 70억 원 정도였는데 50억 원 정도를 창작지원 쪽으로 덧붙여서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요령껏 운영하면 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가 있다. 꼭 그 이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차 회의로 끝낸다고 하셨는데 IFACCA 총회가 2025년 10월 말에 우리가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예술과기술융합기반구축 TF에서 격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게 주제가 되면 이 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완해서 전문가를 많이 영입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또 단순하게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 같이 그냥 총회만 하고 끝내면 안됩니다. 제가 이번 총회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결과물이 있어야지 매번 선언만 하면 뭐 하나?” 라고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만약 우리가 개최한다면 우리는 결과물도 내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은 하고 왔는데 “결과물로 뭐를 낼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

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APE캠프가 너무 좋은 겁니다. APE캠프는 아티스트와 기획자와 엔지니어 100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선발된 사람들이 2박 3일 동안 호텔에서 합숙하면서 교육도 받고 그 과정에서 서로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해 보자.” 라고 얘기가 나오면 5명이 1개조를 만들어요. 100명을 모아놓고 5명이면 20개 조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별로 밤새도록 토론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겁니다. PT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선정되면 해외연수와 더불어서 그 프로젝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결의도 대단하고 참여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좋은 캠프다.”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2차례 개최를 한 것인데요. 이것을 IFACCA 총회 기간 중에, 지금까지 국내에서만 했다고 하면 그때는 글로벌하게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티스트나 엔지니어나 기획자도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공모해서 그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IFACCA 총회 기간 중에 합숙을 하게하고 결과물까지 낼 수 있게 만들어서 그 결과물을 보고 IFACCA 총회에 온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가 맡겠다.” 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20개의 프로젝트를 모두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실제적인 결과물이 아닌가? 그러면 IFACCA 총회의 존재감도 키울 수 있고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이 얘기를 여러 단체와 하다 보니까 ○○○씨가 2025년도 5월에 이것과 관련된 축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도 같이 맞췄습니다. 거기는 장소도 예술의 전당으로 예약을 해 놨어요. 전세계의 아티스트나 기술자들이 모이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끝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TF를 확대 개편하는 쪽으로 해서 개최 결정이 되면 준비위원회로 전환해서 이 사업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정정숙 위원 : 그러니까 TF의 해체가 발전적 해체와 재구성인것이죠. 그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왔고 그 축적물이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실무진 선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 전체회의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실무진과 얘기를 할 때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전개되는 사업들은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보 공유를 해 달라고 했는데요.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매주 하는 주간경영회의 내용 정도만 전달이 되고 그 외에 세세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가 되고 있고 과정은 전달이 되질 않아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 사무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면 바로바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예술가의집에서 매주 수요일에 아르코 라운지클럽이라고 하는 시민문화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공공기관에서 하는 강좌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장르별·분야별로 온·오프라인에서 유명한 강사들을 강사진으로 모셔서 8개 강좌를 격주로 강의합니다. 이것을 공고했는데 수업료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은 회비로 받는 것인데 예술나무후원으로 받는 것이고요. 강의와 더불어서 그분들 간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원하는 사람들을 100% 수용하진 못하고 30명만 선발했습니다. 선발은 면접을 하지는 않고 이것을 신청한 이유가 뭔지를 보고 조금 더 열정적으로 우리 취지에 맞게 활동할 사람들을 분야별로 고르게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150명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선발한 30명을 1기. 그러니까 기수로 계속 선발해서 이 사람들이 네트워킹을 하며 기초예술분야를 확산시키고 예술나무후원을 확산시키는 우리의 파트너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30명이 이미 출발했고요. 참여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차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번 진행했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하더니 네트워킹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적되면 우리 아르코의 입장에서는 큰 후원그룹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김희근 회장이 매년 참석을 합니다. 김희근 메세나협회장이 매년 참석을 하시고 너무 즐거워하세요. 끝나고 나서 뒤풀이를 하는데 뒤풀이까지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고 관심 있는 분야는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제는 김주원 발레리나가 와서 강의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47살인데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비결이 뭐냐? 물으니 아침에 일어나서 3시간 반을 운동한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는지 봤더니 스쿼트를 매일 200개씩 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연습은 또 따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4~5번을 2시간씩 걷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유지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듣지 못했던, 저런 주역이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직접 들으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베니스비엔날레 예산도 확보가 되었고요. 베니스비엔날레 30주년 특별전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시간도 얼마남지 않았습시다. 내년 4월 23일에 개최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고 안전을 의결해 주신 대로 문화공간조성기획팀이 해체되잖아요? 그 인력의 일부를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 TF팀으로 구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그분들이 지난번 출장을 갔을 때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 감을 계속 연결해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TF팀을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내일 하는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티켓 6,500장이 판매됐는데요. 수요가 있는데 그 이상 판매하지 못하는 것은, 표를 샀다면 그 사람들이 100% 다 오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이 너무 많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만 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는 하는데 올림픽 공원을 관리하는 체육진흥공단 측에서는 놀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매표가 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무료로 공연을 해도 1만 명이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페스티벌은 6,500장이 매표가 됐으니 여기서 중지를 해 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일단 후원을 해주신 기업들에게 표를 나눠드렸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니 표를 4장씩 배분해서 초대할 수 있게 해 줬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9천 장 정도의 표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표가 나간 것으로는 성황리에 잘 되었고요. 문제는 당일 사건, 사고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사무처장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고 화장실부터 소방, 의료, 치안 등 준비를 했고 예를 들어 안전문제는 안전요원이 보통 70명 정도가 필요한데 거의 2배로 늘려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주변에 부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정은혜 작가가 와서 초상화를 그려주는 이벤트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오시면 예술나무라운지를 따로 만들어 뒀으니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초청하신 분들 중에 따로 모셔야 될 분들은 예술나무라운지로 오시면 되는데 라운지에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음료도 마시고 담소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장 :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위원장이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김효은 노조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은 노조위원장 : 사실 이 사안은 이미 위원장님께서 노력하셨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장인주 위원님도 눈물을 삼키시며 떠나보내셨을 텐데요. 특히나 저희가 위원회로 출범한 취지도 그러하지만 2015년에 블랙리스트가 터지고 나서 저희가 문체부와 자율운영협약도 맺었고 위원회의 자율성, 독립성을 공식적으로 합의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위원장 임명도 이제 문체부 장관이 하지 않고 위원회가 하도록 호선제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모두 공감하실 일이고 공감의 영역을 벗어날지라도 이 발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문체부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문체부에 의사를 전달하

고자 하는 것도 있는데요. 문화공간조성기획팀이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설립을 위해 실질적으로 인사 발령이 난 것은 2022년도였지만 예술위원회가 이 사업을 하는 마땅한 주체임을 확인받은 자리는 2021년도였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지금까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문체부에서는 어떤 예산과 인력도 주지 않았지만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사업을 위해서 문화공간조성기획팀을 꾸리고 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어느 정도 독립법인을 세울 단계까지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쉬운 것은 이런 겁니다. 사무처 직원들이나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문체부에서 예산이나 인력을 주지 않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7기 위원님들께서 발언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문체부도 합리적인 예산과 인력을 편성해 줬으면 이렇게 독립법인 체제까지 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위탁 종료 공문이 오기 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졸였습니다. 카더라 통신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탁이 종료되었을 때 저희가 얼마나 충분히 반발을 했나? 저 스스로도, 노동조합에서도 고민이 깊었고요. 앞으로 과연 제2의 당인리, 제3의 당인리는 없을 것인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버넌스, 자율적 협치주의 등 허울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가고 있는데 그것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 굉장히 의문을 갖게 되고요. 아트코리아랩 같은 경우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넘어간 경위도 위원님들께서 아시리라 생각해요. 예술과기술융합기반구축 TF 보고안건 종료 후 발언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술과기술융합기반구축 TF 종료 건을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이익을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예술과기술융합 사업 예산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결국 반영은 못 되었지만 지금 예술위원회의 사업은 충분히 더 확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창작분야의 장르기반 예산이 확대될 만큼 확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확대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창작분야 예산이 더 커지려면 결국 정책영역의 예산이 커져야 할 텐데요. 그런데 예술과기술융합 사업은 굉장히 먹거리 사업으로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지금 아트코리아랩이라는 큰 사업으로 다른 산하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IFACCA 총회도 예술과기술융합이라는 주제로 위원장님께서 추진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예술과기술융합의 결과물이 상업적인 어떤 성과를 담보하지 않더라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작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충분한 수단으로서 이 분야를 우리는 놓지 않고 끌고 가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시고, 지금 예술과기술융합기반구축 TF도 준비위원회로 발전적인 체제로 격상돼서 운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예술과기술융합 사업이 예산에 반영은 안 되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정책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트코리아랩에서 하고 있는 창업지원만으로는 당장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상업적인 성과가 안 나오면 없어지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예술위원회의 정책적인 역할이 중요한지를 위원님들께서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왜 이렇게 되었나? 제가 문체부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에서 콘텐츠진흥원 노조위원장님이나 영화진흥위원회 노조위원장님과 얘기를 하다보니까 일반회계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이런 건 거의 체념하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럴까? 결국 핵심은 기금고갈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색깔의 돈이 없어서 이렇다. 위원장님께서도 기금확충에 대한 포부를 밝히셨지만 사실 심장마비 코마 상태로 수혈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으로 까마득합니다. 체육기금, 일반회계, 관광기금 일부를 전입했지만 그것도 돈 색깔이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도 못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진정한 예술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냥 “기금고갈은 너무 오래된 얘기 아니야?”, “9기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체부에도 그리고 기재부에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기금확충과 그에 따라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예술계의 파급효과를 많이 일으킬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사안을 놓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업명도 잘 생각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예술과 기술 융합이라고 하니 산업의 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늘 애

기를 하는 것은 정부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회적 후원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을 확충하는 게 옳겠다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결국 어느 정부나 정권이 들어오면 예산편성의 지침이 서게 되고 그것을 집행하는 데도 지침이 서게 되는데 보이든 보이지 않든 방향이 제시되는 거죠. 우리는 그 지침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 여튼 간에 제가 끝까지 방어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아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산업이 아니고 정말 순수 창작예술 영역을 넓혀가는, 그리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뒤처지면 영원히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3세계 국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서 국제적 네트워킹도 구축하고 영역도 넓혀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3년 10월 위원회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사무처장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일정 조정)

6.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363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회의종료)

